

기후변화 시대 대응... 미래 건축물 통한 해법 제시

광주비엔날레, 제5차 광주폴리

순환경제 통한 '순환폴리' 주제
자연자원·폐기물·부산물 등 활용
이코한옥·옷칠 집 등 순차적 완공
"시민 실제 사용 도시공간 조성"

"건축물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의 해답을 (재)광주비엔날레는 순환경제를 통한 '순환폴리'에서 찾고자 한다.

제5차 광주폴리 '순환폴리'를 구성하는 4개의 최종 결과물이 22일 공개됐다. 가장 최근 완공된 '옷칠 집'을 비롯해 '숨쉬는 폴리', '이코한옥', '에어 폴리'의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프레스토어가 이날 순환폴리 현장에서 열렸다. 지역의 자연 자원,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통해 실험적인 순환과정으로 구현된 폴리들을 차례대로 만나보자.

●숨 쉬며 움직이는 건축물 '숨쉬는 폴리'
가장 먼저 만나볼 순환폴리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자리한 '숨쉬는 폴리'로 기존의 광주폴리 유산을 잇되 '기후위기가 건축의 중심 과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집단 지혜로 풀어낸 프로젝트다. 조남호 건축가와 이병호 친환경 전문가, 수피아건축이 각각 건축환경계획과 탄소전과정 평가 및 목재 구조 제작 등을 맡아 협업해 낸 결과물이다. 생태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단순한 목재 세포가 아닌 다공성 다발 목구조로 구성·확장돼 숨 쉬는 외벽을 이룬다. 지속 가능한 실내 환경 조절 장치 '쿨 튜브 시스템'을 도입해 지붕 일부를 변형했고, 이로 생성된 에어포켓이 더운 공기를 모은 뒤 전동창을 통해 배출한다. 또 국내 최초로 주문 제작 목재 틀에 태양광 패널(BIPV)을 내장해 모든 전기가 건물과 일체형으로 돌아간다.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 외기보다 5도 이하의 실내 환경을 구현해 내 소모 에너지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숨쉬는 폴리'는 동명동의 기존 야외 공연장의 무대와 지원 시설로서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 짓기의 새로운 지평... 환경친화적 지역 재생 '이코한옥'

버려진 한옥이 동네의 새로운 마당으로 탄생했다.

'이코한옥'은 호남의 경제, 문화, 자원이 연결된 생태적 건축을 보여준다.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축가 그룹인 어셈블(Assemble 영국), BC 아키텍츠(BC Architects & Studios & Materials 벨기에), 아틀리에 루마(Atelier LUMA 프랑스)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공동 참여했다. 굴과 꼬막 껍데기, 미역과 다시마, 볶김과 왕겨, 건설 현장의 흙과 돌로 만든 지역의 친환경 자원을 적극 활용, 현대적 기법이 결합한 순환폴리가 탄생했다.

생했다. 한옥의 건축, 조경, 실내 요소 하나하나에 순환, 수리, 재활용의 가치를 세심하게 구현해 지역 재생과 혁신적인 집 짓기라는 커다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셈블과 BC 아키텍츠, 아틀리에 루마 팀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답사를 통해 한국의 해양자원을 순환 대상으로 잡고 한국팀과 협업했다. 석회 중에서도 생석회를 채취해 건축자재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셈블·BC 아키텍츠·아틀리에 루마 팀이 22일 광주 동구 동명동 이코한옥 앞에서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옷칠의 건축, 자연의 재발견... 고급 공예와 일상 연결 '옷칠 집'

4곳의 순환폴리 중 가장 최근 완공된 '옷칠 집'은 세계 최초로 옷칠을 건축의 구조재로 활용해 자연 재료의 가능성을 넓힌 혁신적인 프로젝트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토 도요가 참여해 생산 가공 과정

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산림자원의 업사이클링에 기여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역사적으로 옷은 그릇, 접시, 무기, 농어업 도구를 만드는 데 폭넓게 사용됐다. 특유의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옷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건축과 공예가 만나는 새로운 제작 지평을 열었던 이토 도요의 철학이 들어간 건축물이다.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 "폴리의 테마는 순환이다. 일본팀에서도 지켜보겠지만 순환폴리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들의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광주 동구 동명동 옷칠 집 앞에서 이토 도요 건축가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역 폐기물에 붙여넣은 생명 '에어 폴리'

지난 7월 14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로비에 전시되던 '에어 폴리'가 현재는 동명동에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형 파빌리온 '에어 폴리'는 바다 쓰레기가 돼 버리는 미역 줄기로 제작한 가변

형 재활용 건축이다. 해양 폐기물을 활용해 제작한 생분해성 비닐로 비닐하우스를 재해석하고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뤘다.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자리한 이동형 파빌리온 '에어 폴리'.

●연구에 그치지 않는 실제로 활용하는 공간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총감독은 22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거시기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의 시대 '순환폴리'가 특별한 이유는 친환경 지역 자원이 단순 연구 대상을 넘어서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도시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자원의 순환과정을 통해 우리가 의식주의 고리로 엮인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는 "광주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세계의 기후변화에 관한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광주 시민들이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나 힐링하고 삶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ACC, '아랍문자주간' 운영

27일까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예술강연·타투·타자체험 등 '다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7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 전시와 연계한 '아랍문자주간'을 운영한다.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는 오는 11월 24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관에서 진행되는 아시아문화박물관의 특별 전시다. ACC는 아랍 캘리그라피 문화를 소개하는 이번 특별전에 맞춰 '아랍문자주간'을 기획했다. 낯선 아랍문자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강연과 문양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23일 오후 2시에는 '이슬람 예술과 캘리그라피'라는 주제로 황병하 조선대학교 아랍어과 명예교수의 강의를 열린다. 황 교수의 설명을 통해 시대와 지역, 국가를 초월한 포괄적인 의미의 이슬람 예술과 그 안에 담긴 캘리그라피의 중요

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25~27일 아랍문자를 활용한 타투 체험과 직접 아랍어 타자기를 사용해 보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랍문자 레터링 타투는 일반적으로 아랍 문화권에서 많이 행해지는 헤나 대신 피부화장용 비건잉크를 이용한 타투프린터로 손이나 팔에 타투를 프린트하는 방식이다.

또 직접 아랍어 타자기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엘시드(eL Seed) 작품 속 '당신의 마음을 여세요(Open your mind)'라는 문장을 아랍어 타자기로 직접 입력해 보며 아랍문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한 달간 ACC 누리 소통망(SNS)에서는 '아랍문자, 예술이 되다' 전시 인증샷 이벤트도 열린다. 전시 관람을 인증한 참여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선물(스카프)을 증정한다. '아랍문자주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주체적인 삶 원하는 조선시대 이야기... 예악 초청공연 개최

'조선혼인프로젝트:김신부부턴'
26일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서

예악 초청공연 판소리극 '조선혼인프로젝트:김신부부턴'이 오는 26일 오후 3시 진도군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 무대에 오른다.

예악은 전통예술과 현대적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발굴해 새로운 공연으로 만들어 가는 협업 공연 프로젝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가적으로 혼인을 장려해 백성들을 보살핀 왕의 공덕을 칭송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존의 '김신부부턴'을 혼자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노처녀 '삼월이'라는 캐릭터를 극 중에 새로 도입해 각색한 작품이다. 세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변화하자는 이야기를 담았다.



예악의 초청공연 '조선혼인프로젝트:김신부부턴'이 오는 26일 진도군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 무대에서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를 거쳐 회동 등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직무능력 강좌 무료 개설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

광주문화재단이 2024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신진예술인 과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광주 예술인복지지원사업'에서 '광주예술인아카데미'의 과정 중 하나로 오는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7일 등 3회에 걸쳐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 교육 대상은 2019년 이

후 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신진예술인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개인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광주시 거주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인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은 회차별 선택할 수 있으며, 운영 3일 전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 링크 주소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공지 사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영화 한 편, 토론 한 편'... 참여형 찬반 토론회 개최

내달 2일·9일 동구 미로센터

독특한 형식의 토론을 통해 영화 속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4 문화기획 프로젝트 '영화 한 편, 토론 한 편'이 오는 11월 2일과 9일 광주 미로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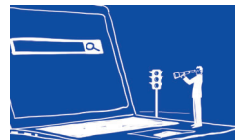
민 수용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를 다룬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AI 기술로 죽은 이를 복원해 그리움을 달래는 내용을 담은 '원더랜드'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진행된다.

찬반 토론을 펼칠 패널 10명과 참가자들은 청중으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띄운 오픈 카톡방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파티가 열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광주 내 영화 애호가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소리 기획자는 "찬반 토론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함께 즐기는 데 있다"며 "관객들이 단순히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